자발적 왕따의 왕따 탈출

(마9:14~26)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발적 왕따의 왕따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 합니다.
자발적으로 왕따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왕따가 되었다가 또 왕따 탈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는 본문 속에는 열두 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낫습니다. 한 관리의 딸,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로 나와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과 혈루병 여인이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음을 입게 되는 본문,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금식에 대한 논쟁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세리 노릇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마태가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세리 친구들이 오게 되고 그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칭해지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져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금식을 하느냐 하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창기나 이방인들과 같이 어우러져 식사를 하는 장면자체가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었고 센세이셔널한 일인,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군다나 죄인들과 어우러져서 퍼지르게 먹고 있는 장면이니까, 거기서 금식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금식논쟁처럼 보이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와 세례요한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아울러서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구세대를 구분지어 내는 사건입니다.
마태의 의도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느냐?
바로 그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분 짓기 위해서인데, 신세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뭡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와 함께 있으려면 그 의사가 아버지로서 함께 있으려면 건강한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아내가 함께 있으려면 건강한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 남자와 그 아버지가 의사일 경우에는 의사로서 함께 하려면 병자라야 됩니다.
병자가 아니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사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고백이라는 것은 삶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삶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느냐?
삶을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죄인으로 살아갈 때라야 죄인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과 삶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배드릴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 예배시간에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 때, 직장생활 할 때, 장사할 때, 사업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무엇을 하든지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 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금식논쟁이라고 제목을 우리가 흔히 붙이는 그 본문이 등장을 했는데 금식논쟁이 전혀 아닙니다.

새 세대와 구세대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이 본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세대에서는 충격적일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의를 향해서 간다든지 의를 향해서 자기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구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나는 도저히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혈루병 여인의 모습으로 마태는 이야기해 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마태가 꾸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사건, 그 기적 사건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새 세대에서 자기가 죄인 됨을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냥 믿음이 있어서 병이 나았다라고 해석하면 오해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는,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의 기적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이 기적사건이 복음서에 옮겨졌을 때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병이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과 그들

의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담고 전하는 행위적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혈루병여인,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의 기적사건이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세대에서 의사이신 예수님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함께 하는데, 그러한 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여자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자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 되었다고 나와요, 12살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생애 동안에 이 여자는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두 사건이. 그래 의미를 상호 서로 보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중심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레위기 15장에 유대사회 내에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처지가 나옵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얘깁니다.
유대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의식에서부터 단절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결정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사회생활이 금지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었던 침대에 접촉하는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게 되면 앉거나 뭐 손끝이라도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누었거나 앉았던 자리에 올려 진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런 물건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집니다.
식탁 앞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식탁 앞에서 여인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그릇이 떨어졌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다는 것은, 생리기간동안에도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겉옷 가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내 딸이 방금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사…' 접촉을 얘기합니다.
이 두 접촉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혈루병여인은 누구에게도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았어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그 죽음이 그대로 혈루병 여인에게 오버랩 됩니다.
혈루병여인은 몸은 살아 있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관계가 죽었고 접촉이 죽은 삶을 살았습니다.
접촉이 죽었다는 건 삶이 없다는 얘기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접촉하고 물건을 접촉해야 삶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시켜 놓기 때문에 접촉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삶이 죽은 자에요.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접촉할 수도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접촉했다는 이 사건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접촉할 수 없는 여자가 왜 예수님께 접촉을 합니까?
그 누구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접촉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금지되어 있는 이 접촉을 예수님께 모든 법을 어기고 접촉을 합니다.
아하!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뭐 같아요? 혈루병에서 나은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본다면 의미를 80%는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병이 나았다는 의미는 20%밖에 안 됩니다.

이 육체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제 관계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관계가 되살아났다, 접촉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접촉의 가능성이 되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이 여자가 시도한 처음 접촉이 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관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접촉할 수 없었는데, 그 누구도 마음이 가 닿을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는데 이 여인이 처음으로 접촉한 대상이 예수님인 상태, 요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접촉이 죽은 상태로부터 네가 이제 접촉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세상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이고, 처음 접촉과 처음 관계자가 예수님이었다 이겁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에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건 뭘 말해요?
12살이면 이제 성인식이 거해지는 시점입니다.
성인으로 취급해주고 결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자로 취급을 해줍니다.
이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접촉하고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 이 성인이 된 여자가 처음으로 접촉하고 만난 대상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혈루병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혈루병을 앓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태의 시각에서.
혈루병여인의 사건이 하나의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혈루병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직장 상사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생각 속에 혈루가 진행됩니다, 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속에 죄가 이미 스며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한다 할 때도, 나라를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을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 조차도 혈루가 흐르듯이 죄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식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해서 관계할 때에, 그 모든 접촉을 통하여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나의 죄가 묻어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 죄의 혈루가 묻어나서 부정하게 되고, 내가 자식에게 개입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개입하고 내 사업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고 차단됩니다.
혈루병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가 끊어지고 섭리가 끊어지고 뜻이 중단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 됨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죄를 보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실감하는 거예요.
뭘 실감합니까? 나는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 없는 혈루병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자식에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끼어 든 만큼 하나님의 뜻은 자식에게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사업에 손대는 정도 열심만큼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부정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일로부터 왕따가 됩니다.
도저히 내가 손 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손만 대면 안 되는 것, 축구경기 같은 것도 특별히 관심과 기대를 걸고 보면 꼭 지지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는 무슨 법칙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혈루병여인의 삶, 관계가 죽고 접촉이 죽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구세대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관계를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를 어떤 적정기준으로 끌어올리고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기준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세대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준치를 만족하려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준치를 만족하려고.

그래서 자식과 관계할 때도 그 자식을 어떤 기준치에 올려놓으려고 관계를 합니다.
모든 접촉과 모든 관계를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그것을 향상시키겠다고, 그 관계를 내가 접촉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어느 기준치 이상으로 올려놓겠다고 뛰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구세대의 사람입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의에 도달하겠다고, 내가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겠다고…
신세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 됨 안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일에 대하여 접촉을 끊어버립니다.
접촉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에게 접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에 대한 내 마음이 갖는 관계까지 끊어버립니다.
몸이 병이 나거나, 못생겼거나 뭐 어떻게 되었거나 저 같으면 날마다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거나 말거나 이 몸에 대한 관계도 마음에서 끊어내고 그 마음이 처음으로 접촉하고 마음이 처음으로 관계하는 대상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께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12살 때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처음으로 살아나서 만나는 상대가 예수님인 것처럼, 아버지도 아닐 거 아닙니까?
손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본게 예수님이에요.
제일 먼저 관계한 게 예수님이고 제일 먼저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날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처음 접촉을 하고 예수님과 처음 관계를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왕따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면 그러나 이제까지의 죄악 된 습관은 끊임없이 기존의 관계를 붙잡고 내가 주체자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구세대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만들려 합니다.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는 뭡니까?

내 죄인 됨을 알고 내 생각과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죄가 혈루처럼 흐르고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흘러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인해서 단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살려 내시면서 첫 번째 관계가 아내도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부모도 아니고 사업도 직장 일도 아닌 예수님이 첫 번째 관계가 되어주시는 상태, 이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의 시작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관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인이 된 야이로의 딸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과 첫 번째로 관계 맺고 그리고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금식이야기에서 나오는 신랑신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으로서 첫 번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세대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계, 사업을 손으로 붙잡고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구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사업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사업을 붙잡아도 괜찮다고 여겨질 만큼 죄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마음으로 자식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식을 붙잡고 있어도 괜찮을 만큼 나는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면 자식에 대해 걱정조차 못합니다.
내 걱정 때문에 자식은 더 망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자식이 더 망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죄인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총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걸 아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관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 붙잡고 모든 관계를 끊어내 왕따가 된 뒤에 예수님이 하루를 허락하셔서 부활시켜 살려 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아내에게로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에게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으로 가는 것, 현재 주어진 현실 상황으로 들어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혈루병여인의 모습을 내 삶에서 실현해 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혈루병 여인처럼 나는 만지는 것마다 상대하는 것마다 나로 인해서 죄가 흘러나와서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관계해선 안 된다 그리고 관계가 다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관계가 죽으면 여러분,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 중보기도 등 이런 기도들의 내용이 다 없어질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고 만난 뒤에, 주님의 신부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내를 관계하고 남편을 관계하고 자녀를 관계하고 사업을 관계하고 물건을 관계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십자가 붙잡고 자발적 왕따가 된 뒤에, 그 관계의 왕따 됨을 예수님을 처음으로 붙잡으면서 왕따 탈출을 시도하는 자, 그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여인의 삶에 담겨진 이 의미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 주셔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내 죄의 혈루병에 의해서 부정하게 될 모든 상대와의 관계를 끊게 하시고, 처음으로 주

님께 접촉하므로 주님이 나의 첫 상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묶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 번째 관계를 토대로 나머지 관계들을 해나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